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허토실 최수미†

건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경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대학생 442명을 대상으로 자기수용 척도, 공감 척도,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자기수용이 공감을 거쳐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검증되었다. 둘째, 남녀 집단별 비교를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모형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공감이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를 부분매개 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은 공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수용과 공감이 직접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논의와 제한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 대학생, 자기수용,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

* 본 논문은 허토실(2017)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수미,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Tel: 02-450-3825, E-mail: sumi0727@konkuk.ac.kr

서론

인간은 의미 있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대인관계는 중요한 삶의 과제이다(권석만, 2009). 대인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종합적인 과정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형득, 1982; 김창대, 김수임, 1999). 특히 대학생은 Eric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성인초기로 자신의 정체감 확립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중요한 발달과제인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홍계옥, 2013). 대학생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자율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선택의 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대를 선택하고 접근하여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권석만, 2009).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실태조사에서 대학생활 중에 가장 큰 고민으로 대인관계를 선택한 비율이 2008년 7.3%에서 2015년 23%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8, 2015). 또한 대학생들의 상담 호소 문제를 조사한 결과 대인관계가 (26.4%) 2위로 나타났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대학 내 상담실을 찾는 학생 대부분이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연세대학교 상담센터, 2014).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생활에서 대인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대학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불안, 우울, 좌절 등의 정서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불만족이나 의욕상실, 심리적 장애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형성과 인격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권석만, 2009). 따라서 사회에서 유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달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적응적인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 내 어떤 심리적 기제가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중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발달시킴으로써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낙관성, 희망, 정서지능, 공감, 수용, 유머감각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들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Seligman, 2002; Luthans, Youssef & Avolio, 2007; 권성혜, 2016; 김광웅, 조유진, 홍기묵, 2005).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수용은 개인의 전반적인 적응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김경진, 2013, 이어진, 최수미, 2015; 임전옥, 장성숙, 2012; Macinnes, 2006). 수

용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문제해결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삶에 대한 적응력과 안녕감을 향상시킨다(Dougher, 1994). 특히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은 우울, 열등감 등 자신의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적응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임전옥, 장성숙, 2012). 또한 자기수용은 건강한 대인관계형성의 기본이 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권성혜, 2016), Macinnes(2006)의 연구를 통해서도 자기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로 인한 불안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국내 연구들을 통해서도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가 검증되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어진, 최수미(201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송지은과 임정하(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수용이 높아질수록 교사와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Ellis와 Ellis(2011)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수용할수록 타인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즉, 자기를 수용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인 방식을 확장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자기수용과 타인에 대한 수용과 공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Omwake, 1954; 임전옥, 장성숙, 2012). 두 변인간의 관련성은 박상환, 김장이, 방병노(2016)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들 연구에서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개념을 가지고 자기수용을 할 때, 같은 입장으로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자신을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심리적 관점에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공감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연, 2014).

또한 공감은 사회적 관계를 유능하게 하고 친밀한 관계를 촉진시키는 등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변인으로 여겨진다(Redmond, 1989; 김광웅 외, 2005; 박성희, 1994). 대인관계에서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을 정의하고 있는데,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마치 자신이 상대방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타인의 생각, 느낌,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Smith, 2006), 공감을 통해 대인관계는 효과적이고 만족스럽게 유지될 수 있다. Hoffman(2000)에 의하면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정서에 관심을 보이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해주며 대인관계의 유능성을 향상시켜주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관계형성의 기초가 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한나리, 이동귀, 2012에서 재인용). 배미정, 조한익(2012)은 공감과 대인관계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공감과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에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혔다. 특히, 공감을 인

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누어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모두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인지적 공감은 정서적 공감에 비해 4배 이상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할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아지며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수용이 타인에 대한 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써의 자기수용과 공감의 일차적인 관계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자기수용과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어떤 과정을 통해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긍정적인 개인 내적 특성인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데 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과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세 변인의 구조적인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또 다른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지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대인관계 속에서 선택의 주체는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개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권성혜, 2016). 따라서 자기수용과 공감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역량을 이끌어내어 내는 것에 초점을 두어(Rogers, 1961; Bohart & Tallman, 1999; Keyes & Lopez, 2002; 장춘미, 2010; 조운서, 2016), 더욱 균형잡힌 대인관계 유능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과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각의 변인들의 성차를 보여주고 있다.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공감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Hoffman, 1977; Eisenberg & Lennon, 1983; O'Brien, 2013; 한가희, 이인혜, 2016).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일부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지니는 여학생이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박순아, 박근우, 2016; 임은미, 김은주, 2011), 자기수용에 대한 성차 연구는 많지 않지만 유사개념인 자기존중감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살펴본다면 타인의 평가에 덜 민감한 남성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연, 1999; 조현두, 2016).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각 변인의 성별의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변인

들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자기수용,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성차가 나타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볼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도 성별에 따른 경로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요약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수용은 대학생의 공감수준 향상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남녀 간에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둘째, 자기수용,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간의 관계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편의표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K대학교에서 온·오프라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78부가 회수되었고 온라인의 경우, K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협조를 구해 총 175부가 회신되었다. 동시에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대학생 커뮤니티에 설문지를 게시하여 총 124부가 회신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5명(온라인 29명, 오프라인 6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44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집단의 응답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3세이며,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442명 중 남학생이 252명(57%), 여학생이 190명(43%)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 분포는 1학년 87명(19.7%), 2학년 93명(21.0%), 3학년 153명(34.6%), 4학년 88명(19.9%), 5학년 18명(4.1%), 기타 3명(0.7%)으로 3학년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 43명(9.7%), 사회계열 111명(25.1%), 자연·공과계열 205명(46.4%), 사범계열 21명(4.8%), 예체능계열 24명(5.4%), 기타 38명(8.6%)으로 자연·공과계열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자기수용 척도

자기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Chamberlain과 Haaga(2001)의 자기수용 척도(Revise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USAQ-R)를 추미례와 이영순(2014)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존재로서 자기수용(5문항),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6문항), 피드백으로부터 자기수용(4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존재로서 자기수용 문항은 인간으로서 다른 것(성취,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자기수용을 반영하고 있다.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에 대한 문항은 성공이나 실패, 능숙함이나 미숙함, 가치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은 판단과 관계없이 자기를 수용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피드백으로부터 자기수용 문항은 칭찬이나 비난과 같은 피드백과 상관 없이 자기를 수용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자기수용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중요한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본 연구에서의 자기수용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공감 척도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정서공감척도, Davis(1980)가 제작한 대인관계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검사, Bryant(1982)가 제작한 정서공감척도를 박성희(1994)가 번안한 것을 전병성(2003)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공감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인지적 공감(15문항), 정서적 공감(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공감은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로, 정서적 공감은 타자 지향적 공감적 각성과 개인적 고통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공감의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편이다.’, ‘다른 사람이 웃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즐거워진다.’가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식 5점 척도 상에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공감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Furman, Wittenberg과 Reis(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김창대와 김수임(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처음관계 맺기(8문항),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8문항), 자기노출(8문항), 정서적 지지(8문항), 대인갈등 다루기(8문항)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가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

인관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자기수용과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세 변인들 간의 상호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에 앞서, Russel, Kahn, Spoth와 Altmaier(1998)가 제안한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였다. 잠재변인이 여러 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도 알맞은 방법으로 문항꾸러미를 만들면 측정변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모형을 설정할 수 있어 적합도가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본 연구에서는 문항꾸러미를 통해 자기수용과 공감을 3개의 측정변인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4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섯째,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자기수용,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Curran, West와 Finch(1996)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변인들의 정규 분포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들은 기준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은 .145~.443($p < .01$)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변인	자기수용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
자기수용	1		
공감	.145**	1	
대인관계 유능성	.443**	.437**	1
M	3.15	3.55	3.60
SD	0.54	0.39	0.40
최소값	1.47	1.93	2.15
최대값	4.87	4.50	4.73
왜도	0.13	-0.55	-0.07
첨도	-0.13	1.14	0.28

** $p < .01$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은 선행연구와 이론적 가설에 따라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공감의 매개효과를 가정하는 부분매개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표 2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 중 χ^2 검증은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적합도 지수 기준에 따르면 TLI와 CFI는 .90 이상이고 RMSEA의 경우 .10 이하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본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기준에 적절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N=442$)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87.497***	32	.971	.979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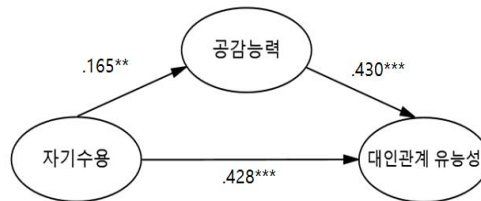
*** $p < .001$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그림 1은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자기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이 $\beta=.165(p<.01)$ 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43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 역시 대인관계 유능성에 $\beta=.428(p<.001)$ 로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이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구조방정식은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따라 자기수용이 공감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직접효과 및 총효과의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28(p<.001)$ 이며 공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071(p<.01)$, 총효과는 $.499(p<.01)$ 이다. 또한 공감의 간접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025\sim.122)$,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표 3>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N=442)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기수용	→	공감	.165**	-	.165**
자기수용	→	대인관계 유능성	.428***	.071**	.499**
공감	→	대인관계 유능성	.430***	-	.430**

** $p<.01$, *** $p<.001$

성별에 따른 자기수용과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적 관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연구모형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일한 모형이 남녀 집단에 모두 적합해야만 추정치 비교가 가능하므로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수용기준에 적절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만족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χ^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앞서 형태동일성이 성립된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 간의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측정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이다(서영석, 2010). 표 4와 같이, 기저모형과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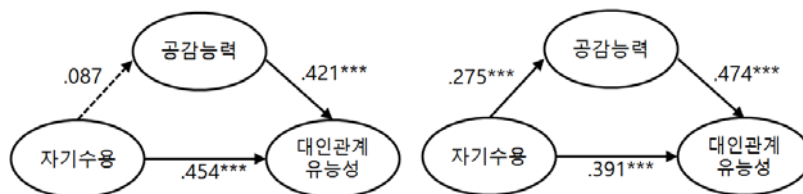
정동일성 모형의 x^2 값 차이는 11.121이고 자유도의 차이는 7로 두 모형은 유의 수준 .05에서 임계값인 14.067보다 낮게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연구모형의 측정변인들이 남녀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동일한 잠재변인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구조동일성 검증을 위해 연구모형 내의 경로계수 모두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모형과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측정동일성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설정한 후 비교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x^2 값 차이는 61.447이고 자유도의 차이는 13으로 두 모형은 유의 수준 .05에서 임계값인 22.362보다 높게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경로계수가 동일하지 않아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영석, 2010). 즉, 구조 동일성이 성립되지 않아 경로계수에 있어 남녀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 대학생의 각각의 구조적 관계와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표 4>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구조 동일성 검증

	$x^2(df)$	$\Delta x^2(\Delta df)$	TLI	RMSEA
형태동일성 모형	119.191(64)		.971	.044
측정동일성 모형	130.312(71)	11.121(7)	.972	.044
구조동일성 모형	191.759(84)	61.447(13)	.957	.054

성별에 따른 구조적 관계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자기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beta=.454$, $p<.001$)을 미치며,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beta=.42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자기수용은 공감($\beta=.275$, $p<.001$)과 대인관계 유능성($\beta=.391$,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beta=.474$,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 집단의 경우,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성별에 따른 자기수용,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좌: 남학생, 우: 여학생)

다음으로 여학생 집단의 부분매개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91($p<.001$)이며 공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130($p<.01$)이며 총효과는 .521($p<.01$)이다. 또한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060~.246),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남학생			여학생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기수용 → 공감	.087	-	.087	.275***	-	.275**
자기수용 → 대인관계 유능성	.454***	.037	.490**	.391***	.130**	.521**
공감 → 대인관계 유능성	.421***	-	.421**	.474***	-	.474**

** $p<.01$, ***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그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더불어 성별에 따라 자기수용과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적 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여러 변인들의 효과를 동시에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모형으로 검증한 결과, 자기수용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감을 매개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 결과는 대학생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유능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유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공감의 긍정적인 특성이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유능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자기수용은 공감을 매개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이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김경진(2013)과 이어진, 최수미(2015)의 연구와 일치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수용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되어 공감을 향상시켜준다는 연구(박상환 외, 2016),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채명옥(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대인관계능력과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에서 공감이 부분매개한다는 연구들(배순원, 2015; 최혜진, 김선영, 2015)과 비슷한 맥락의 결과이다. 공감의 매개효과가 입증됨으로써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대학생 개인 내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수용과 공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학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적, 교육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자기수용과 공감을 강조할 수 있다. 우선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는 대학생은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중·고등시기에 유보되었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해야 한다(권석만, 2009). 이 때 자기 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느낌, 생각, 행동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와 관계없이 단점 또한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이며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수용 과정은 타인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주어 타인에 대한 평가 대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점차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에서 발생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만족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권성혜(2016)는 대학생들을 위한 대인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자기탐색, 자기이해, 자기수용 등의 내용을 구성하여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탐색과 자기이해, 자기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정은이(2011) 역시 대학생들이 집단 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을 공감하며 배려하게 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본 능력을 습득하여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종합해보면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대학생의 발달 단계에서 자기수용과 공감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이 매개하는 구조적 모형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연구모형의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은 검증이 되었으며 구조 동일성은 성립되지 않아 성별에 따른 구조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는 전체 집단과 마찬가지로 공감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매개효과가 성립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경로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나타나 부분매개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자기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남학생은 자기수용과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공감발달에는 자기수용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성인의 공감과 관련된 성격특성과 성차를 밝힌 김용희(2007)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이타주의가, 남성은 위험회피 변인이 공감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타주의 척도가 다른 척도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방어적으로 남에게 모범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잘 보이고자 하며 타인의 욕구에 자신을 맞추고자 하는 면이 남성보다 더 강할 수도 있음이 시사된다. 남성의 공감에 영향을 미쳤던 위험회피 변인은 걱정, 불안, 낮은 사람에 대한 수줍음과 관련되며 주로 행동을 억제하는 측면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걱정이 많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눈치를 보이며 때로는 불편해 하는 경향이 많은 남성이 공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이 여성에서는 이타주의와 같은 긍정적 변인과 관련되는 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공감 발달에서 성차를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남성은 성취지향적인 면을,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면을 지속적으로 장려 받아 왔으며 여성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입장을 더 고려하도록 격려 받으며 성장한 환경이 남성과 여성의 공감발달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용희, 2007).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자아의 방어 기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과 불성실한 응답 또는 고의적으로 왜곡된 응답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자료 수집과 자료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대상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가 총 자료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다차원적인 측정변인으로 구성된 모형의 적합도가 최적 모형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여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을 통해 측정변인을 재구성하

였다. 다차원성을 가진 요인을 다룰 때에도 알맞은 방법으로 측정변인을 구성하면 잠재변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적절한 모형을 설정할 수 있고 적합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완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Little et al., 2002; Little et al., 2013).

위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수용과 공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일차적인 연구만 있었을 뿐, 두 가지의 변인이 동시에 어떤 과정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이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최근 긍정적인 개인 내적 변인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인관계 유능성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긍정심리학적 관점과 더불어 대학상담에서 내담자의 자원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이 증가됨에 따라(Rogers, 1961; Bohart & Tallman, 1999; Keyes & Lopez, 2002; 장춘미, 2010),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수용과 공감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기수용과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각각의 변인별로 나타낸 연구들은 많았지만 세 변인의 구조적 모형에서 성별의 차이를 보여준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세 변인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 개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9).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성혜 (2016). *대학생을 위한 대인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례 연구-자기탐색 및 이해: 자아개념, 자기의식, 자기수용, 정서자각 및 표현*. 청소년행동연구, 21(21), 53-68.
- 김경진 (2013).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천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 조유진, 홍기묵 (2005). *심리적 성장환경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3), 1-13.
- 김용희 (2007). *공감능력과 관련된 성격특성 및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573-585.
- 김창대, 김수임 (1999).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학생연구, 35(1), 83-95.
- 박상환, 김장이, 방병노 (2016).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표현이 타인관점수용과 의사소통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울, 경기도의 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

- 지, 16(7), 410-422.
- 박성희 (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순아, 박근우 (2016).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대인관계 능력 및 부모애착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7(3), 207-224.
- 배미정, 조한익 (2014). 내현적 자기에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 연구. 상담학연구, 15(6), 2417-2435.
- 배순원 (2015).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8). 2007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8, 21-44.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15). 2014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8, 47-68.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송지은, 임정하 (2015). 부모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6(4), 117-144.
- 연세대학교 상담센터 (2014). 2014학년도 상담센터 활동사항. 연세대학교 상담센터.
- 이수연 (1999). 자기수용과 자기존중감 및 완벽주의 성향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어진, 최수미 (2015).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209-224.
- 이주연 (2014). 자기초점적 주의와 공감과의 관계: 자기수용과 정서표현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득 (1982).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임은미, 김은주 (2011).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차이. 다문화교육, 2(2), 43-68.
- 임전옥, 장성숙 (2012). 자기수용 연구의 동향과 제언. 인간이해, 33(1), 159-184.
- 조현두 (2016).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춘미 (2010). 대학상담에서 긍정심리학의 활용 가능성.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3, 63-80
- 전병성 (2003). 공감과 이타행동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이 (2011). 대학생을 위한 자기 성장 및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 집단 상담의 효과 분석. 교육방법연구, 23(4), 687-712.

- 채명옥 (2016).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능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95-103.
- 최혜진, 김선영 (2015).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공감능력이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 :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323-345.
- 추미래, 이영순 (2014).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27-43.
- 한가희, 이인혜 (2016).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683-697.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2012 상담정보보고서. 상담연구지원팀.
- 한나리, 이동귀 (2014).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37-156.
- 홍계옥 (2013). 경주소재 대학생이 지각한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주 연구, 22(1), 81-100.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ohart, A. C., & Tallman, K. (1999). *How clients make therapy work: The process of active self-heal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Chamberlain J. M., & Haaga, D. A. F. (2001).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9(3), 177-189.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3.
- Dougher, M. J. (1994). The act of acceptance. In S. C. Hayes, N. S. Jacobson, V. M. Follette, & M. J. Dougher (Eds.), *Acceptance and change: Content and context in psychotherapy*. Reno, NV: Context Press.

- Eisenberg, N. & Lennon, R. (198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94(1), 100-131.
-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Hoffman, M. L. (1977).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84(4), 712-722.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yes, C. L., & Lopez, S. J. (2002). Toward a science of mental health.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45-59.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 (2007).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cinnes, D. L. (2006).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5), 483-489.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4), 525-543.
- O'Brien, E., Konrath, S. H., Gruhn, D., Hagen, A. L. (2013). Empathic concern and perspective taking: Linear and quadratic effects of age across the adult life span.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8(2), 168-175.
- Omwake, K. T. (1954). The relation between acceptance of self and acceptance of others shown by three personality inventori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8(6), 443-446.
- Redmond, M. V., (1989). The Function of empathy(decentering) in human relations. *Human Relations*, 42(7), 593-605.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 Russel, D. W., Khan, J. H., Spoth, R., & Altmaier, F.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eligman, M. E.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 3-12.
- Smith, A. (2006).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The Psychological Record*, 56, 3-21.

The Mediation Effects of Empathy in the Relationship of Self-Accepta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Huh To Sil Choi Su Mi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hypothesized and investigated that empath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ccepta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Furthermore,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at would be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model explaining these three variables. The total 442 university students was included for the data analysis, and the data was composed of 190 of female and 252 of male. The result showed that first, empathy mediated self-accepta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addition, the second result examined that there was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model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ree variables. In other words, where as partial mediation effect of empathy for female students indicated between self-accepta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re were the direct influence of self-acceptance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no direct effect of self-acceptance on empathy and indirect effect of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future implications for interventive effor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were suggested at the end of the paper.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self-acceptance, empathy, interpersonal competence